

슈미트의 『정치적 낭만주의』에서의 가톨릭 현실정치의 이론*

홍철기**

[초 록]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의 1919년 작 『정치적 낭만주의』는 낭만주의 비판서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대체로 현대의 독자나 연구자들에 의해 낭만주의의 대표자로 생각되지 않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아담 뮐러와 그가 속한 이른바 ‘정치적 낭만주의’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첫째, 왜 하필 아담 뮐러를 비판했는가? 둘째, 그 자신이 가톨릭 보수주의자였던 슈미트는 왜 가톨릭주의와 보수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뮐러와 프리드리히 쉐레겔의 정치적 낭만주의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아담 뮐러 르네상스’가 있었다는 점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5772).

**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제어: 카를 슈미트, 아담 뮐러, 낭만주의, 가톨릭주의, 현실정치
Carl Schmitt, Adam Müller, Romanticism, Catholicism, Realpolitik

주목하고자 한다. 현대의 평가와는 달리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아담 뮐러는 ‘독일적’ 정치, 경제, 신학 이론의 원천으로 여겨졌고, 슈미트의 책은 바로 이러한 흐름에 대한 반발이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슈미트의 정치적 가톨릭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뮐러를 비롯한 19세기 초반의 가톨릭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교황이나 교회의 정치적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으며, 독일의 가톨릭주의자들이 과거 자신들에 대한 적대정책의 일부였던 ‘현실정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슈미트는 입법부를 압도하는 강한 집행부 중심의 독재정부를 가톨릭주의자들이 지지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개했다.

1. 문제설정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가 1919년에 발표한 『정치적 낭만주의』는 독일 낭만주의자들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비판서다.¹⁾ 이 책은 나치 시대를 제외하면 평생 그의 저작을 출판했던 ‘둔커 운트 훔블로트’(Duncker & Humblot) 출판사와의 첫 작품이다.²⁾ 이 책의 비판의 칼날은 아담 뮐러(Adam Müller, 1779-

1) Carl Schmitt (1998), *Politische Romantik*, Berlin: Duncker & Humblot; 이 책의 최신 판본은 1998년의 제6판이다. 제6판은 1919년의 초판에 1921년의 논문 「정치 이론과 낭만주의」를 합하고 새로 서문을 단 1925년의 제2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Carl Schmitt-Dorotič (1919), *Politische Romantik*, München: Duncker & Humblot; Carl Schmitt-Dorotič (1921a), “Politische Theorie und Romantik”, *Historische Zeitschrift* 122, R. Oldenberg Verlag; Carl Schmitt (1925a), *Politische Romantik*, München: Duncker & Humblot). 이 책은 1976년에 처음 정치학자 배성동에 의해 번역되었다[C. 시미트 (1976), 배성동 역, 『정치적 낭만』, 서울: 삼성출판사]. 최근 독문학자 조효원에 의해 새로 번역되었다[칼 슈미트 (2020), 조효원 역, 『정치적 낭만주의』, 성남: 에디투스].

2) Carl Schmitt (2005), *Die Militärzeit 1915 bis 1919. Tagebuch Februar bis Dezember 1915. Aufsätze und Materialien*, Berlin: Akademie Verlag, pp. 501-502; Reinhard

1829)를 향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한다고 간주되는 초기 낭만주의(Frühromantik)의 일원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초기 낭만주의를 기준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는 전향을 했고, 종교적으로는 개종을 한 인물이다. 그는 초기 낭만주의자들이 대체로 지지했던 프로테스탄티즘과 공화주의 편에 잠시 머물렀지만, 가톨릭교회와 신분 귀족제를 지지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미트는 뮐러가 “정치적 낭만주의의 흔치 않은 순수 전형”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를 낭만주의 전체의 대변자로서 겨냥하고 있다.³⁾ 이 책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그 뿐만이 아니다. 슈미트는 이 책에서 뮐러를 이론적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을 구석이라고는 어디 하나 없는 희대의 거짓말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⁴⁾ 슈미트는 아담 뮐러를 19세기 독일 정치사상사 최대의 사기꾼 중 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낭만주의 전체의 대변자이자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 전체의 이념적 대표자로서 독일 지성사의 범정에 세우려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대의 저명한 역사학자 프리드리히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 1862-1954)는 아직은 무명의 저자였던 슈미트가 이 책에서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에 대해 마치 재판정에 선 “검사의 어조”로 쓰고 있다고 평했다.⁵⁾ 슈미트에 의해 피고인석에 소환된 인물은 아담 뮐러만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개종과 전향을 통해 정치적 낭만주의를 주도한 초기 낭만주의자 프리드리히 슐레겔(Friedrich Schlegel, 1772-1829), 그리고 노발리스(Novalis)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시

Mehring (2009), *Carl Schmitt: Aufstieg und Fall. Eine Biographie*, München: C.H. Beck, p. 101.

3) Carl Schmitt (1998), p. 21.

4) Carl Schmitt (1998), p. 55.

5) Friedrich Meinecke (1920), “Politische Romantik. Von Dr. Carl Schmitt-Dorotič, München und Leipzig, Duncker & Humblot, 1919, 162 S.”, *Historische Zeitschrift* 121, R. Oldenberg Verlag, p. 293.

인이자 철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르덴베르크(Friedrich von Hardenberg, 1772-1801)도 소환되었다.

슈미트는 필러가 정치적으로는 기회주의자였으며, 이론적으로는 무엇이든 낭만화하여 자신의 창작과 예술적 생산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즉 언행 모두에서 자신의 낭만주의적 천재성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고 정치상황을 그러한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다. 결국 낭만주의의 본질은 이론적으로는 현실의 인과관계로부터 도피에 있고, 실천적으로는 정치현실 속에서의 능동적인 결단의 회피에 있다는 것이다. 낭만주의자가 정치가일 때, 그는 필연적으로 수동적이고 무책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와 행동 방식은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의 전형이 되었다는 것이 슈미트의 진단이다. 이러한 진단의 형이상학적 핵심어가 바로 ‘주관화된 기연주의’(subjektivierter Occasionalismus)다.⁶⁾ 낭만주의자들에게는 혁명도 반혁명도 모두 심미적 경탄과 예술적 모방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절대로 낭만주의자들을 정치적 모범으로 삼거나 그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슈미트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⁷⁾ 슈미트는 이 책에서 “보수주의의 정화”⁸⁾를 시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낭만주의자들이 설사 표면적으로는 반동주의자나 반혁명주의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진정으로 보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저 혁명을 공격하거나, 가톨릭교회를 찬양하는 일이 그들의 미적 취향에 부합하였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6) Carl Schmitt (1998), p. 110.

7) Carl Schmitt (1998), p. 39.

8) Hermann Kurzke (1983), *Romantik und Konservatismus: Das "politische" Werk Friedrich von Hardenbergs (Novalis) im Horizont seiner Wirkungsgeschichte*,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pp. 40-44.

독일 낭만주의에 대한 슈미트의 이러한 평가는 뮐러의 지인들이나 당대에 그를 평가한 다른 저자들, 그리고 1830년대 이래로 발표된 낭만주의에 관한 방대한 문헌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영역자는 20세기 후반의 영어권 독자들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그 존재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19세기 독일 문헌들에 관해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 독일어 원문 주석 내용의 일부를 자신의 번역본에서는 생략할 정도였다.⁹⁾ 그만큼 우리는 『정치적 낭만주의』를 읽을 때, 19세기나 20세기 초 독일과 유럽의 맥락에 비춰보기보다는 현재의 맥락에서 낭만주의와 슈미트의 그에 대한 비판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경우 고발 대상보다는 고발인의 말만을 통해 낭만주의를 평가할 가능성 또한 마찬가지로 높아진다. 하지만 이 책의 어조가 정말로 객관적인 연구자보다는 분노한 고발인의 어조라면, 공정한 재판관은 당연히 고발인의 말을 피고인, 그리고 그의 변호인의 말과 대조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정치적 낭만주의』에 관련하여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왜 아담 뮐러인가? 현대에 우리가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자를 골라야 한다고 상상해보자. 이때 아담 뮐러가 선택될 여지는 거의 없다. 그의 저작이나 작품들 중 어떤 것도 예술이나 미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평가받지 않는다. 게다가 그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초기 낭만주의에 속하지도 않는다. 흔히 독일 낭만주의의 유산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 민족주의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피히테(J. G. Fichte, 1762-1814)나 헤겔(G. W. F. Hegel, 1770-1831)을 떠올린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이 초기 낭만주의자들과 상반된 입장에 있었다는 사실도 아담 뮐러의 대표성을 약화시킨다. 결국 『정치적 낭만주의』에 대한 독해는 우선적으로 슈미트의 낭만주의 비판이 타당

9) Guy Oakes (1986), "Translator's Introduction", Carl Schmitt, *Political Romanticism* (trans. by Guy Oakes), Cambridge: MIT Press, p. xxxii.

한가 여부나 그의 정치사상이 최종적으로 낭만주의 극복에 성공했는가 여부가 아니라 밀러가 광의의 정치적 낭만주의뿐만 아니라 낭만주의 자체의 정치적 대표자로 슈미트에 의해 선택된 이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둘째, 슈미트는 아담 밀러를 유럽 보수주의의 계보에서 추방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했는가? ‘주관화된 기연주의’라는 말로 요약되는 슈미트의 낭만주의 비판은 낭만주의를 특정한 근대 형이상학적 이념형으로 정립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철학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검증을 통해 곧이 텍스트의 저술 의도가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주관화된 기연주의’라는 표현에만 집중한다면, 슈미트가 이 책에서 특정 유형의 정치가, 특히 그가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가’라고 부르는 유형을 정치적 낭만주의자에 대비시켜서 옹호하려 했던 의도가 형이상학적 쟁점에 종속되거나 가려지게 된다. 슈미트의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 논변은 사실 정치적 낭만주의자들과 그들을 높이 평가하는 당대인들이 정치적으로는 수동적이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위기나 투쟁의 상황에서 그들을 신뢰하거나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그 자신의 정치적 논변을 뒷받침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적으로 입장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논쟁과 비판의 상대방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발화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설사 그러한 발화가 정말로 확실한 근거에 기대고 있을지라도, 적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순수한 가치중립성은 불가능하게 된다. 슈미트 자신도 이후에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밝히듯이 상대방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거나 혹은 반대로 ‘비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정 논쟁상황에서 상대방을 격하하고 자신을 높이하고자 하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현이다.¹⁰⁾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자신과 달리 상대가 불순한 정파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공격하는 것이다. 반면 ‘비정

치적’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능동적이고 과감한 반면에 상대는 그렇지 못하다고 공격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대 ‘비정치적’, ‘능동적’ 대 ‘수동적’, ‘책임’ 대 ‘무책임’ 등의 적대적 수사를 직접적으로 분석의 언어로 차용하는 대신에 이러한 수사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다음의 두 가지 추가적인 사안에 관한 분석을 통해 정치적 낭만주의자의 비정치성, 그리고 슈미트 자신의 정치성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이에 입각하여 각자의 입장을 평가하려 한다. 하나는 낭만주의적 가톨릭주의에 대한 비판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 낭만주의자와 구별되는 진정한 보수주의 정치가의 상과 관련된다. 특히 슈미트가 개신교나 무신론의 편이 아닌 가톨릭주의의 편에서 슐레겔과 뮐러의 가톨릭주의를 배척한 이유, 그리고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이 높이 평가한 영국 철학자이자 정치가 버크(Edmund Burke, 1729-1797)를 낭만주의자들에 맞서 반-낭만적 보수정치가의 전형으로 제시하려 했던 근거에 집중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본 연구는 『정치적 낭만주의』의 저자가 기존의 독일 민족주의 및 보수주의 모두와 차별성을 갖는 가톨릭 보수주의 정치이론을 정립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첫째, 아담 뮐러에 대한 당대의 평가에 비취웠을 때, 독일 정치사상사에서 정치적 낭만주의의 주요 유산은 ‘주관화된 기연주의’의 형이상학이나 심미주의적 정치관으로 쉽게 치환될 수 없다.¹¹⁾ 오히

10) Carl Schmitt (2009), *Der Begriff des Politischen: Text von 1932 mit einem Vorwort und drei Corollarien*, Berlin: Duncker & Humblot, pp. 29-30.

11) 이러한 치환을 무비판적으로 전제할 때, 슈미트에 대한 가능한 비판은 그 자신도 결국 낭만주의자이며 심미주의자라는 자기모순을 지적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슈미트가 ‘기연주의적 결단주의자’라거나 ‘정치적 표현주의자’라는 비판을 들 수 있다. 전자는 1935년에 후고 피알라(Hugo Fiala)라는 가명으로 발표된 뢰비트의 비판이며, 후자는 케네디의 비판인데, 이러한 비판은 낭만주의에 대한 독자들의 부정적 평가를 당연시해야만 한다[Karl Löwith (1984), “Der okkasionelle Dezisionismus von Carl Schmitt”, *Sämtliche Schriften. bd.*

려 19세기 독일 정치사상사의 맥락과 그 유산이라는 관점에서는 국가 유기체사상과 ‘현실정치’(Realpolitik)가 핵심어가 되어야 한다. 이 둘은 모두 낭만주의라는 공통의 기원에 기대고 있다.¹²⁾ 그리고 슈미트는 낭만주의 비판을 통해서 국가유기체사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실정치’론을 정립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¹³⁾ 둘째, 슈미트의 낭만주의적 가톨릭주의에 대한 비판은 보수주의 진영 내부에서의 이념적 차별성 확립의 시도로 봐야한다. 특히 슈미트의 보수주의를 ‘가톨릭 현실정치’의 이론이라 부를 것이다. 슈미트의 가톨릭 현실정치는 구체적으로는 교황과 교회의 현실정치적 역할을 완전히 부정한다는 점에서 세속정부론이지만, 여전히 가톨릭 엘리트가 주도하고 다수 가톨릭계 시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가톨릭적’이며, 특히 입법부가 전적으로 집행부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독재정부론’이다. 물론 『정치적 낭만주의』에 이러한 독재정부론의 완성형이 제시된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이 책에서 결정적인 단서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며, 바이마르 시기 슈미트의 정치사상에 대한 평가 또한 이후의 나치정권에 대한 부역 사실 이전에 이미 가톨릭 현실정치 이론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8, Stuttgart: Metzler; Ellen Kennedy (1988), “Politischer Expressionsmus: Die kulturkritischen und metaphysischen Ursprünge des Begriffs des Politischen von Carl Schmitt”, *Complexio Oppositorum. Über Carl Schmitt* (hrsg. Helmut Quaritsch), Berlin: Duncker & Humblot, pp. 233-252].

12) ‘현실정치’ 개념의 창안자인 로카우(August Ludwig von Rochau, 1810-1873)의 사례가 이를 전형적으로 뒷받침해준다[John Bew (2015), *Realpolitik: A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7-84; Duncan Kelly (2018), “August Ludwig von Rochau and *Realpolitik* as historical political theory”, *Global Intellectual History* 3 (3), pp. 301-330].

13) 이런 점에서 슈미트의 현실정치론은 베버를 따르면서, 당대 독일 민족주의적 현실 정치론의 전형이었던 마이네케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된다[Duncan Kelly (2017), “Introduction: Carl Schmitt’s Critique of Friedrich Meinecke”, *Max Weber Studies* 17 (1), pp. 48-53].

2. 왜 아담 뮐러였는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1932년 9월 13일과 17일 자 『쾰른 신문』(Kölnische Zeitung) 문학특집판에 두 번에 나눠서 “아담 뮐러 — 르네상스인가?”라는 제목의 서평을 실었다.¹⁴⁾ 이 서평은 슈미트의 단행본에 비하면 훨씬 짧지만,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아담 뮐러 수용과 해석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평은 우선적으로는 1931년에 보수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뵐로프(Friedrich Bülow, 1890-1962)가 편저자로 서문을 쓴 아담 뮐러 선집 『공동체 정신에 관하여』를 문제 삼고 있다.¹⁵⁾ 아렌트에 따르면 뵐로프의 서문은 아담 뮐러를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즘의 사상적 선구자로 옹립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뮐러는 (코포라티즘 국가를 의미하는 말로 당대에 사용된) “신분국가(Ständestaat)의 수호자”이자 “자유주의, 산업화, 계몽주의의 적”으로서의 낭만주의 정치경제 이론의 대표자로 제시된다고 한다. 그리고 아렌트는 비교적 짧은 이 신문 서평에서 이러한 방식의 독해가 대단히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오직 피상적인 언어적 유사성에만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의 바람과 달리 아담 뮐러가 말하는 ‘신분국가’는 정말로 “봉건 귀족제”를 의미했고, 그의 민족주의 사상은 “오스트리아 왕정복고주의”와 메테르니히 체제의 ‘신성 동맹’을 지지하는 입장과 아무런 모순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다.¹⁶⁾ 아렌트는 아담 뮐러의 본래

14) Hannah Arendt (2007), “Adam Müller — Renaissance?”, *Reflections on Literature and Culture* (ed. by Susannah Young-ah Gottlieb),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38-45.

15) Adam Müller (1931), *Vom Geiste der Gemeinschaft: Elemente der Staatskunst. Theorie des Geldes*, Leipzig: A. Kröner.

16) Hannah Arendt (2007), pp. 38-39.

의도를 밝힘으로써 국가사회주의적 독해가 사실은 뮐러의 이론을 철저하게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음을 지적한다.¹⁷⁾

슈미트의 아담 뮐러론과 비교했을 때 아렌트의 서평은 뮐러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를 보여준다. 아렌트에게서 혐오와 경멸은 당연하게도 오히려 낭만주의에 대한 국가사회주의적 오독을 향하고 있다. 아담 뮐러가 이미 과거의 사상가라는 점을 전제로, 그리고 또한 그가 분명 “파브뉴”(parvenu), 즉 본질적으로 출세지향적 인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선 아렌트는 뮐러의 정치적 낭만주의가 ‘정치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렌트는 뮐러가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헤겔,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와 마찬가지로 “정치철학자”라고 쓰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정치철학의 중심 주제인 “차이” 혹은 “대립”의 문제에 처음부터 천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뮐러의 이른바 민족 개념은 국가사회주의적 민족주의와는 매우 다른 것임을 강조한다. 그 주된 이유는 뮐러의 유기체주의적 민족 개념의 최종적인 정당성은 국가가 아닌 가톨릭교회로 귀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뮐러가 말하는 독일 민족 개념은 “민족주의적”(völkisch)이라기보다는 “교황권지상주의적”(ultramontan)이라고 하는 편이 더 말이 된다.¹⁸⁾ 아렌트는 벨로프의 선집보다 앞선 1923년에 발간된 또 다른 판본의 뮐러 선집에 실린 예수회 성직자이자 신학자 에리히 프쉬바라(Erich Przywara, 1889-1972)의 서문에서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를 인용한다. 『국가철학론집』¹⁹⁾이라는 제목의 이 선집 서문에서 프쉬바라는 뮐러의 “기독교 정치철학이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 당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전

17) Hannah Arendt (2007), p. 42.

18) Hannah Arendt (2007), p. 42.

19) Adam Müller (1923), *Schriften zur Staatsphilosophie*, München: Theatiner-Verlag.

히 인간 생활 전반을 위한 타당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가르쳤다고 평했다는 것이다.²⁰⁾ 이렇게 봤을 때, 아담 뮐러의 ‘기독교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국가사회주의는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아렌트의 판단이다. 아렌트의 서평으로부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이마르 시대에 아담 뮐러를 비롯한 정치적 낭만주의에 대한 재발견과 수용은 단순히 정치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담 뮐러와 낭만주의 사상에 대한 관심은 원래 낭만주의의 중심영역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신학의 영역까지 퍼져있었다.

정치 분야에서의 아담 뮐러 및 낭만주의 사상에 대한 재평가는 당대에 대표적인 독일 민족주의자이자 역사주의자인 마이네케에게서 시작되었다. 그의 1908년 작 『세계시민주의와 민족국가』는 아마도 ‘정치적 낭만주의’라는 개념 자체의 최초 용례 중 하나로 보인다.²¹⁾ 그가 정의하기를 정치적 낭만주의는 우선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분명히 초기 낭만주의와 구별이 되어야한다. 이 두 시기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초기 낭만주의의 일원이었던 프리드리히 쉐레겔의 1808년 가톨릭 개종, 그리고 오스트리아 지지 입장으로의 전향이었다고 마이네케는 보고 있다. 이로써 쉐레겔은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로운 낭만주의를 정치와 교회에 묶인 낭만주의로 변모시켰다”는 것인데, 이때 정치와 교회에 관한 낭만주의가 바로 정치적 낭만주의를 의미한다.²²⁾ 물론 가톨릭으로의 개종과 정치적 전향만이 정치적 낭만주의를

20) Hannah Arendt (2007), p. 42.

21) Friedrich Meinecke (1969), *Weltbürgertum und Nationalstaat*,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정치적 낭만주의를 비롯한 낭만주의 수용과 재평가, 그리고 나치 시대를 계기로 한 퇴조에 관해서는 로크의 연구를 참조하라 [Christian Roques (2018), “Bridging the Political Gaps: The Interdiscursive Qualities of Political Romanticism in the Weimar Republic”,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Concepts* 13 (1), pp. 51-74].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는 이미 슈미트와 같은 비판자들을 의식하면서 이 개념이 “종종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좋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결코 그런 의미를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낭만주의가 “특정 낭만주의 시인과 문필가의 정치관과 행위만이 아니라 그 정치적 사상계와 조류 전체”를 포괄하며, “19세기 중반을 넘어서 계속해서 발전했다”고 강조한다.²³⁾ 마이네케에 따르면 19세기 독일 정치사와 지성사에서 민족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이른바 ‘국가의 해방’인데, 이를 가능케 한 세 사람의 “위인”이 “헤겔, 랑케, 비스마르크”이지만,²⁴⁾ 그들 이전에 특히 랑케와 트라이츠크에 이어지는 독일 역사주의와 민족주의의 국가관의 최초 단계를 수립한 것이 바로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담 뮐러라는 것이다.²⁵⁾ 물론 뮐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마이네케의 스승이기도 한 트라이츠크(Heinrich von Treitschke, 1834-1896)에게서 이미 발견된다.²⁶⁾ 뮐러는 국가의 권위 및 독자성과 당대에 동의어로 받아들여진 국가인격성 개념의 선구자였다는 것이다. 트라이츠크의 이러한 단편적인 평가를 역사학적으로 뒷받침한 마이네케의 연구는 19세기 독일 국가사상이 18세기 계몽주의와 관념론 철학의 세계시민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민족국가의 국익우선주의와 자국중심적인 마키아벨리즘 내지는 ‘현실정치’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낭만주의가 중간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독일 관념론의 공화주의와 보편주의에서 벗어나지

22) Friedrich Meinecke (1969), p. 77.

23) Friedrich Meinecke (1969), p. 58 n1.

24) Friedrich Meinecke (1969), p. 236.

25) Friedrich Meinecke (1976), *Die Idee der Staatsräson in der neueren Geschichte*,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434, n1; Friedrich Meinecke (1969), 113-141.

26) Heinrich von Treitschke (1922), *Politik: Vorlesungen, gehalten an der Universität Berlin*, Leipzig: S. Hirzel.

못한 피히테가 아니라, 그로부터 탈피하면서 피히테의 주요 비판자로 자신을 부각시킨 아담 뮐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네케의 재평가로부터 전간기 독일에서의 정치적 낭만주의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학 이론에서의 아담 뮐러와 정치적 낭만주의에 대한 재평가를 주도한 것은 아렌트의 서평에서 다룬 벨로프나 1930년대 초반의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오스트리아 보수주의자이며 코포라티즘 이론가인 오토마르 슈판(Othmar Spann, 1878-1950)과 그의 학파였다. 이후에 그 자신이 국가사회주의의 지지자가 되는 슈판은 이미 1911년에 쓴 대표작 『학설사를 바탕으로 한 국민경제학의 주요이론』에서 아담 뮐러를 재평가한다. 그는 이 책에서 아담 뮐러를 ‘당대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로 평가하면서 케네(Fançois Quesnay, 1694-1774)와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로 대표되는 소위 ‘고전 자유주의’의 원자적인 개인주의에 맞선 독일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²⁷⁾ 슈판의 학파 또한 아담 뮐러의 저작들을 복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박사(Jakob Baxa, 1895-1979)에 의해서 『통치술의 요소들』²⁸⁾과 『선집』²⁹⁾이 1920년대 초반에 출판되었다. 또한 박사 본인은 1923년 『낭만주의 국가과학 입문』³⁰⁾을 쓰는 등 낭만주의 경제학 연구서를 남겼다. 마이네케가 정치적 낭만주의에서 국가인격설과 국가유기체론의 교차지점의 이론을 발견했다면, 그래서 말하자면 초기 자유주의가 내세웠던 ‘개인의 주권’에 맞서서 자신의 주권적 “승리”를 선포하는 국가적이고 공동체

27) Othmar Spann (1911), *Die Haupttheorien der Volkswirtschaftslehre auf dogmengeschichtlicher Grundlage*, Leipzig: Quelle & Meyer [Christian Roques (2018), pp. 61-62에서 재인용].

28) Adam Müller (1922), *Die Elemente der Staatskunst*, Jena: G. Fischer.

29) Adam Müller (1931), *Ausgewählte Abhandlungen*, Jena: G. Fischer.

30) Jakob Baxa (1923), *Einführung in die romantische Staatswissenschaft*, Jena: G. Fischer.

적인, 즉 “초개인적인 권력의 개체성” 내지는 인격성을 이론화하는데 정치적 낭만주의가 성공했다고 봤다면,³¹⁾ 슈판과 그의 학파는 동일한 내용을 경제학에 적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3. 낭만주의와 가톨릭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정치적 낭만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이른바 ‘신낭만주의’³²⁾의 주창자들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슈미트의 적대감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교회의 정치적 권위 내지는 역할, 그리고 가톨릭주의의 정치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 슈미트의 정치적 가톨릭주의의 특징은 ‘교황권지상주의’(Ultramontanism)를 비롯하여 교황과 교회의 일체의 정치적 역할을 부정하면서도 가톨릭주의의 정치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중적이고 심지어 모순적으로까지 보일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사실 가톨릭교회의 정치적 역할이 상징적 수준에만 제한되어 있고, 그 이상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우리에게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심지어 불필요할 정도로 복잡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가톨릭교회에 대한 슈미트의 입장을 논할 때, 우리는 대체로 반-세속주의냐, 세속주의냐 라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가 교회와의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주의에 충실한 헌법학자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톨릭주의와 완전히 절연한 세속적 주권론자, 즉 예컨대 ‘20세기의 홉스’라는 두 가지 결론 중 하나

31) Friedrich Meinecke (1969), p. 125.

32) Christian Rocques (2018), p. 60.

를 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양자택일적인 관점보다 더 문제적인 것은 이 두 가지 극단을 구별하지 않는 입장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가톨릭 반동주의와 반혁명주의가 권위주의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흠스적 절대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또한 나치즘이나 파시즘과도 다르지 않다는 극단적인 무차별성만을 내세우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게 될 때, 이미 슈미트 당대에 독일과 유럽에서의 정치적 스펙트럼 상에서 이미 다양한 입장으로 분화되어 경합 중인 정치적 가톨릭주의를 정치 무대와 담론에서 주변화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다양한 가톨릭주의 정치이념 중에서 슈미트의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낭만주의』에서의 낭만주의 비판, 특히 그 중에서도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의 가톨릭주의에 대해 가하는 공격의 정치적이고 정파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일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결국 낭만주의적 가톨릭주의에 대한 슈미트의 비판이 20세기 이후의 보수주의와 전통주의의 연속성 혹은 불연속성이라는 핵심 쟁점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지 못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은 저자인 슈미트 자신의 모호한 입장에 의해서 가중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실제로 우리는 이 책의 후속 저작 『정치신학』과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 가서야 정치적 가톨릭주의에 관한 그의 보다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슈미트의 낭만주의적 가톨릭주의에 대한 비판은 독일 낭만주의의 종교와 교회에 대한 입장이 비록 슐레겔과 뮐러의 개종과 전향에도 불구하고 초기 낭만주의로부터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와 유사한 평가는 이미 마이네케에게서도 확실히 발견된다. 그가 보기에 낭만주의의 신학과 교회론은 초기 낭만주의와 정치적 낭만주의를 묶어주며, 이는 이후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와 비스마르크의 본격적이고 순수한 현실정치적 국가 권력 이론 및 실천과는 구별된다. 정치적 현실주의와 “국가적 이기주의”³³⁾를 동일시하는 마이네케의 입장에서는 가톨릭교회의 정치 개입은 국가권력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 비스마르크의 이른바 ‘문화투쟁’(Kulturkampf)은 가톨릭주의와 국가이익의 첨예한 대립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초기 낭만주의의 프로테스탄티즘이든, 정치적 낭만주의의 가톨릭주의든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독일 낭만주의가 초기의 공화주의적 입장에서든, 아니면 후기의 복고주의적 입장에서든 일관되게 기독교와 교회를 유럽 통합의 구심점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현실정치가를 지향하는 마이네케에게 이는 민족주의와 대립하는 세계시민주의의 연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낭만주의의 세계시민주의적 기독교론과 교회론의 원형은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1793년 작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칸트에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단지 이념으로서 인류 전체가 신의 세계 정부 아래에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보이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이념 내지는 이상의 현실화를 의미한다.³⁴⁾ 이와 유사한 논변은 초기 낭만주의자 노발리스의 1799년 작 『기독교 혹은 유럽』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프로테스탄티즘이 결국 중단되고 새로운 영속적인 교회에 자리를 내주어야만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으면서, “기독교가 다시 한 번 생명력과 효력을 회복하고 영토경계를 초월하는, 보이는 교회가 지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³⁵⁾ 그리고 아담 뮐러는

33) Friedrich Meinecke (1969), p. 271.

34) Immanuel Kant (1968),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Kants Werke: Akademie Textausgabe, Bd. VI*, Berlin: Walter de Gruyter, p. 101.

35) Novalis (1983), *Schriften III: Das philosophische Werk II*, Stuttgart: Verlag W.

『통치술의 요소들』에서 가톨릭교회에 이와 유사한 인류 통합, 즉 유럽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성직자 계급에게 “국가들 상호간의 통합”, 그리고 개별국가들의 사회 내부에서 “확실한 인륜적 평등과 기독교적 상호성이 모든 시민적 관계 안에서 유지되도록”하는 임무를 부여한다.³⁶⁾

슈미트의 낭만주의적 가톨릭주의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단순히 세속 종교로서의 세계시민주의를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 그의 비판은 오히려 낭만주의자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부여하는 정치적 역할이 사실은 자신들이 손수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기 위한 핑계라는 점에 집중한다. 슈미트는 프리드리히 쉐레겔의 후기 보수주의 정치사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1820년의 강연 『시대의 징표』³⁷⁾를 지목하면서 이를 문제 삼는다. 그가 보기에 쟁점은 세계시민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의 양자택일에 대한 회피가 아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오히려 국가와 교회 사이에서 결단을 회피하는 일이다. 슈미트가 보기에 쉐레겔이 가톨릭교회를 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당대에 오스트리아 정부와 가톨릭교회 중 어느 한 쪽을 골라야 하는 비상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행운 덕분이다.³⁸⁾ 그리고 슈미트는 쉐레겔을 프랑스의 혁명 정부와 가톨릭교회 중 후자의 편에서 결단한 반혁명 가톨릭주의자 보날드(Louis de Bonald, 1754-1840)와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 1753-1821)에 대비시킨다.³⁹⁾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슈미트 자신이 혁명 정부 대신 교회를 선택한 가톨릭 정치가들의 편에 섰

Kohlhammer, p. 524.

36) Adam Müller (1809), *Die Elemente der Staatskunst, II*, Berlin: Sander, p. 106.

37) Friedrich Schlegel (1966), *Kritische Friedrich-Schlegel-Ausgabe, Bd. 7, Studien zur Geschichte und Politik*, München, Verlag Ferdinand Schöningh, pp. 483-596.

38) Carl Schmitt (1998), p. 124.

39) Carl Schmitt (1998), p. 123.

음에도 그가 교황권지상주의를 세속정치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슈미트는 『시대의 징표』에 나타난 슐레겔의 드 메스트르 비판을 들면서 슐레겔을 공격하는데, 이 때 쟁점이 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교회의 법적 통제권의 인정 여부다.⁴⁰⁾ 슐레겔은 교회의 국가에 대한 법적 권한 행사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보면서 드 메스트르를 비판하는데, 슈미트가 이때 드 메스트르의 편을 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슈미트가 교황과 교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 그가 이 책에서 낭만주의에 대립하는 18세기까지의 고전주의를 옹호한다는 사실도 이러한 인상을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슈미트가 1917년에 가톨릭계 잡지 『수마』(Summa)에 기고한 「교회의 가시성」⁴¹⁾ 또한 슈미트가 교회의 권위와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인상을 강화시켜준다.

하지만 여기서 슈미트가 옹호하고 있는 것은 결단 자체이지, 교회를 위한 결단, 혹은 교황 및 교회에 의한 결단은 아니다. 그는 슐레겔을 비롯한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이 정치적 결단을 이른바 ‘상위의 제3자’에게 미루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심지어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이 결단의 주체를 교회가 아니라 정부 내지는 국가로 보는 경우에도 슈미트가 문제 삼는 것은 낭만주의자들에게 정부 혹은 국가가 결단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점, 즉 낭만주의적 주체에 의한 결단의 회피로 인해 미뤄진 결단의 도착지가 국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모든 정치적 낭만주의의 핵심”이 된다. 즉 국가란 대립하고 적대하는 당사자들을 초월하는 더 높은 제3의 향으로서 이러한 적대가 그 안에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⁴²⁾ 반면 슈미트가 보기에 가톨릭 반동주의 사상가들의 생각처럼 교회가

40) Carl Schmitt (1998), p. 124; Friedrich Schlegel (1966), p. 563.

41) Carl Schmitt (2005), pp. 445-452.

42) Carl Schmitt (1998), p. 127.

결단의 주체가 되었을 때에도 중요한 것은 교회가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된다는 사실 자체라기보다는 교회가 어떤 상위의 제3자에게도 결단을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슈미트가 『정치적 낭만주의』를 발표했던 시기에 이미 유럽에서 교황권지상주의는 가톨릭주의의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 내에서 가톨릭정치의 성립과 결집, 그리고 성장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문화투쟁’에 대한 기억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미 약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과 가톨릭 사이의 정치적 적대도 대체로 완화된 상태였다.⁴³⁾ 대신에 유럽에서의 가톨릭주의는 프랑스의 ‘악시옹 프랑세즈’(Action Française)와 같은 가톨릭 민족주의, 가톨릭 민주주의, 가톨릭 사회주의, 그리고 이름과는 달리 정파적 활동으로부터의 자발적인 후퇴를 의미했던 가톨릭 행동주의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⁴⁴⁾

슈미트의 낭만적 가톨릭주의 비판은 유럽에서의 정치적 가톨릭주의가 겪은 이러한 역사적 변화과정의 맥락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정치적 낭만주의』의 후속작들에서 슈미트는 분명하게 교황권 지상주의나 그와 유사한 정치적 입장은 모두 역사적으로 이제 과거에 속하며, 단지 가톨릭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에 불과하고 전혀 당대의 현실정치적 의미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1921년의 『독재』에서 현대의 많은 독자들은 독재의 공화주의적 기원 및 원형과 관련하여 마키아벨리에 관한 논의에 집중하지만,⁴⁵⁾ 실제로 그 책의 저자

43) Jürgen Elvert (2005), “A Microcosm of Society or the Key to a Majority in the Reichstag? The Centre Party in Germany”, *Political Catholicism in Europe 1918-45* (eds. by Wolfram Kaiser & Helmut Wohnout), London: Routledge, pp. 38-52.

44) Martin Conway (1997) *Catholic Politics in Europe 1918-1945*, London: Routledge; Martin Conway (2005), “Catholic Politics or Christian Democracy? The Evolution of Inter-war Political Catholicism”, *Political Catholicism in Europe 1918-1945* (eds. by Wolfram Kaiser & Helmut Wohnout), London: Routledge, pp. 193-206.

슈미트는 주권-독재 관계의 군주제적이고 가톨릭주의적 원형을 중세 말 교회에서의 교황직과 그의 행정대리인에게서 찾는다.⁴⁶⁾ 이러한 논의는 1923년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서 재론되는데 여기서 이러한 역사가 가톨릭주의의 유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교황과 교회가 세속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고, 세속정부를 능가하는 실질적인 독재정부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강조된다. 가톨릭교회는 이제 결코 스스로 정치적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가톨릭주의자는 정치적 대표의 정수 내지는 이념을 교회가 로마제국의 몰락 이후에 보존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탈정치화에 대한 주장은 민주주의 하에서 농민 대신 도시노동자를 가톨릭 독재정치의 주요 지지층으로 결집해야 한다는 현실정치적 계산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었다.⁴⁷⁾ 또한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집필한 1922년의 대표작 『정치신학』에서 슈미트는 이미 『독재』 집필 과정에서 발견한 19세기 스페인 외교관이자 가톨릭 보수주의자 도노소 코르테스(Juan Donoso Cortés, 1809-1853)를 재해석하면서 반혁명주의적 보수주의를 전통주의와 대립관계에 놓는다. 이를 통해 그는 정치적 낭만주의의 가톨릭주의에 대한 비판을 정교화하고 있다.⁴⁸⁾ 그리고 이후에 가톨릭주의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슈미트의 정

45)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를 들 수 있다. John McCormick (1997), “The Dilemmas of Dictatorship: Carl Schmitt and Constitutional Emergency Powers”, *Canadian Journal of Law & Jurisprudence* 10 (1),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pp. 163-187.

46) Carl Schmitt-Dorotič (1921b), *Die Diktatur: von den Anfängen des modernen Souveränitätsgedankens bis zum proletarischen Klassenkampf*, München: Duncker & Humblot.

47) Carl Schmitt (1925b), *Römischer Katholizismus und politische Form*, München: Theatiner-Verlag.

48) Carl Schmitt (1922),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München: Duncker & Humblot.

치적 신조로, 도노소 코르테스는 그의 정치적 가면 내지는 페르소나가 된다.⁴⁹⁾

4. 유기체주의, 국가인격성, 현실정치

낭만주의적 가톨릭주의에 대한 슈미트의 비판의 최종 귀결지점은 바로 유기체주의(Organizismus)에 대한 비판이다. 사실 유기체주의는 낭만주의 자체만큼이나 우리의 정치적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않다. 낭만주의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이라고 도식적으로 파악되듯이, 정치와 국가에 대해서 유기체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곧바로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파시즘과 전체주의에 대한 경험 이후에 낭만주의나 유기체주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분명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그 말과 이념의 역사 전체에 이러한 판단을 회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 현대의 맥락이 다르다. 게다가 낭만주의나 유기체주의 전체의 역사가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향해 이미 예정된 방향으로 전진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예컨대 다음의 세 가지 반례가 유기체주의와 그 반대 입장 사이에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유기체적 비유가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포함하는 동물적 ‘활동’이나 ‘경쟁’이 아니라 식물의 ‘생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유기체주의는 곧바로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를 함축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둘째, 정치적이거나 이론적인 논쟁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죽은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살아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대비시키는 경우, 혹은 상대방의 입장을 ‘기계적’이라

49) Reinhard Mehring (2009), pp. 142-150, pp. 223-226.

고 지칭하고 자신의 입장을 ‘유기적’이라고 지칭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앞선 사례와 동일한 비판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셋째, 유기체(Organismus)와 어원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용례들에서도 인접해 있는, 주로 법학적 의미의 기관(Organ), 그리고 사회학적 의미의 조직(Organisation)에 대해서도 유기체주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평가가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적용되는가?⁵⁰⁾

슈미트의 유기체주의 비판은 바로 유기체주의 혹은 유기체의 비유가 광범위하게 사용된 19세기의 사상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한다. 19세기 지성사에서 유기체 개념과 비유의 광범위한 사용은 슈미트의 낭만주의 비판의 중요한 배경을 이룬다. 우리는 슈미트의 낭만주의 비판이 낭만주의자들의 고유한 문체 혹은 언어 사용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이 혁명의 상황에서는 혁명적이 되고, 혁명이 끝나면 보수주의자가 될 수 있으며, 다시 혁명적 상황이 돌아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다시 혁명적인 입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슈미트가 비판할 때,⁵¹⁾ 단지 그들의 정치적 기회주의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슈미트는 이를 그들의 언어사용과 연관시킨다. 그래서 그는 낭만주의자 노발리스가 보수주의자 버크를 평가한 유명한 문장을 예로 든다. 노발리스는 1798년에 “혁명에 관한 다수의 반혁명 저서들이” 발표되었지만 오직 버크만이 “혁명에 반하는 혁명적인 책을 썼다”고 평한바 있다.⁵²⁾ 낭만주의와 보수주의를 차별화하려는 명확한 의도에서 슈미트는 낭만주의자들이 사용하는 “혁명적”이라는 말이 사

50) Ernst-Wolfgang Böckenförde & Gerhard Dohm-van Rossum (1978), “Organ, Organismus, Organisation, politischer Körper”,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e-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Band 4* (hrsg. von Otto Brunner, Werner Conze & Reinhart Koselleck), Stuttgart: Klett-Cotta, pp. 519-622.

51) Carl Schmitt (1998), p. 119.

52) Novalis (1981), *Schriften II: Das philosophische Werk I*,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p. 459.

실은 “낭만적”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며, “낭만적”이라는 말은 다시 상황이 바뀌면 “반혁명적”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된다는 것인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보수주의자 버크의 “웅장한 파토스와 강한 기질”이 아니라 낭만주의자의 “미적 경탄과 모방의 충동”이라는 것이다.⁵³⁾ 정치적 낭만주의에 특징적 언어와 수사에 대한 비판은 결국 낭만주의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치 대립에 직면하는 대신에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즉 자의적으로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언어적 대립에 고착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슈미트의 눈에는 정치적 낭만주의란 체계적인 정치이론과 확고한 반혁명적 실천의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는 보수주의 내지는 반혁명주의와 달리, 그와 반대로 거의 모든 정치적 입장과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는 언어적 대립을 가지고 노는 기회주의적 유희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슈미트는 낭만주의자들의 언어적 대립의 목록을 정리하는 데까지 이른다. 낭만주의자들은 ‘살아있는’을 ‘역학적-기계적-수학적, 경직된’에 대해서, ‘유기체적’을 ‘무기물적’에 대해서, ‘진정한’을 ‘대용물(외견, 기만)’에 대해서, ‘영속적’을 ‘일시적인’에 대해서, ‘포용적인’을 ‘파괴적인’에 대해서, ‘역사적인’을 ‘자의적인’에 대해서, ‘견고한’을 ‘혼란한’에 대해서, ‘평화로운’을 ‘당파적인, 논쟁적인’에 대해서, ‘정통적인’을 ‘혁명적인’에 대해서, ‘기독교적인’을 ‘이교도적인’에 대해서, 그리고 ‘신분제적-단체적’을 ‘절대주의적-중앙집권적인’에 대해서 대립시킨다는 것이다.⁵⁴⁾ 그리고 전자의 어휘들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후자에는 부정성을 부여하는 언어적 “긍정 아니면 부정”이 결국 “모든 사태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 없는 형식을 갖는 가짜 논변의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⁵⁵⁾

그런데 이러한 언어적 대립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53) Carl Schmitt (1998), pp. 132-133.

54) Carl Schmitt (1998), p. 108.

55) Carl Schmitt (1998), p. 109.

것은 바로 ‘유기체적인 것’ 대 ‘기계적인 것’ 혹은 ‘유기체’ 대 ‘기계’였다. 그리고 낭만주의는 바로 이러한 언어적 대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공헌이 있다. 실제로 이 대립은 분명 슈미트가 깎아내리고 있듯이 구체적인 정치적 대립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세기 독일 법학사에 대해 슈톨라이스(Michael Stolleis)가 관찰한 것처럼 이 말은 그것을 사용하는 발화자의 위치에 따라서 자유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자유친화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보수주의적이고 “반동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⁵⁶⁾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체는 기계적인 것과 대립하며, 이 대립은 슈미트가 『정치적 낭만주의』에서 비판한 것과는 달리 정치적 내용을 완전히 결여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언어적 대립에는 18세기 계몽주의와 절대주의 모두를 기계적인 것으로 각각 하면서, 19세기의 낭만주의와 역사주의를 그것을 극복한 유기체적인 것으로 제시하려는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⁵⁷⁾ 유기체주의 정치사상과 법학의 토대가 된 언어적 대립의 정치이론적 기원을 독일 초기 낭만주의 정치철학에서 찾은 주요한 연구는 바로 바이저(Frederick S. Beiser)의 것이다.⁵⁸⁾ 그에 따르면 초기 낭만주의자들의 유기체주의는 다원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실제로도 유기체주의는 국가나 공동체를 원자화된 개인들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다원적인 ‘지체’ 내지는 ‘마디’(Glieder)로 분절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체주의는 특히 정치 집단 내지는 공적 단체로서의 국

56) Michael Stolleis (1992), *Geschichte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utschland, Band 2: Staatslehre und Verwaltungswissenschaft, 1800-1914*, München: Verlag C. H. Beck, p. 125.

57) Barbara Stollberg-Rilinger (1986), *Der Staat als Maschine: zur politischen Metaphorik des absoluten Fürstentums*, Berlin: Duncker & Humblot.

58) Frederick Beiser (2003), *The Romantic Imperative: The Concept of Early German Romantic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가의 인격성(Persönlichkeit)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이론적 자원이 되었다. 이때 국가의 인격성이란 절대주의적 관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절대주의에 맞서는 관념이다. 왜냐하면 국가인격성의 대립 개념은 통치자 혹은 군주의 인격성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국가인격성은 적어도 최초에는 국가를 신인동형적으로 신비화하거나 신화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군주나 통치자의 자연적 인격성과 구별되는 추상적인 국가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이는 바로 19세기 중반 독일의 입헌주의자와 의회주의적 자유주의자의 의도이기도 했다.⁵⁹⁾ 『정치적 낭만주의』에서의 낭만주의적 유기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후에 유기체주의의 계승자인 오토 폰 기에르케(Otto von Gierke, 1841-1921), 그리고 기에르케로부터 영향을 받은 초기 다윈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⁶⁰⁾

19세기 독일 정치사상사에서 유기체주의와 국가인격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정치적 낭만주의』라는 저술의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의도와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현실정치’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정치적 낭만주의』에서 직접적으로 ‘현실정치’ 개념이나 ‘현실정치가’(Realpolitiker)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이 문제는 ‘주관화된 기연주의’ 개념과 같은 주목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슈미트의 의도가 현실정치에 근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 우선 슈미트는 정치적 낭만주의를 비판하면서 ‘원인’(causa)과 ‘기회’(occasio)를 대립시키고, 낭만주의자들이 전자와의 모든 관계를 거부하면서 오직 후자를 통해 자신들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려 한다고 말한다.⁶¹⁾ 그리고 이

59) Carl Schmitt (2009), p. 40.

60) Carl Schmitt (1930), *Hugo Preuss, sein Staatsbegriff und seine Stellung in der deutschen Staatslehre*, Tübingen: J. C. B. Mohr.

61) Carl Schmitt (1998), p. 93.

때 ‘기회’가 아닌 ‘원인’이 속하는 것은 바로 ‘현실’이며, 정치란 바로 현실에 대한 개입으로서의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정치적 낭만주의자의 정치에 대한 회피 내지는 “유기적 수동성”과 “능동적 정치가”의 “책임” 사이의 대립이 성립하게 된다.⁶²⁾

특히 능동적 정치가의 ‘책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슈미트가 능동적 정치가의 사례로 베크와 드 메스트르, 그리고 보날드와 같이 프랑스 혁명의 반대자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임’이라는 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이 거의 같은 시기에 베버(Max Weber, 1864-1920)가 행한 유명한 강연인 「직업으로서의 정치」의 핵심 어였다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⁶³⁾ 심지어 베버 자신도 이 강연에서 현실정치나 현실정치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에 베버는 ‘직업정치’(Berufspolitik)와 ‘직업정치가’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가 정의하기를 직업정치가란 두 가지의 상충하는 윤리 사이에서 엄정하고 확고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단련된 인물이다. 이때 두 가지의 상반된 윤리란 내면적 신념의 명령을 따르는 ‘확신 윤리’와 외부 세계의 인과 관계에 따른 행동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판단에 까지 종속되는 이른바 ‘책임 윤리’를 의미한다. 베버와 슈미트는 공통적으로 ‘현실정치’와 그 말을 연상시킬 수 있는 관련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특히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 패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이 말이 필연적으로 비스마르크의 대외정책과 통치술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베버와 슈미트는 공통적으로 강한 대통령이 정당정치적 분열에 종속되는 의회를 압도하는 정치를 지지했다.⁶⁴⁾

62) Carl Schmitt (1998), p. 119.

63) Max Weber (1921a), “Politik als Beruf”,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München: Drei Masken Verlag, pp. 396-450.

64) Max Weber (1921b), “Der Reichspräsident”,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München:

하지만 베버의 직업정치가와 슈미트의 보수정치가 혹은 반혁명정치는 결코 명칭 상으로만 다르지 않았다. 베버는 직업정치가의 반대편에서 현실정치를 부정하는 윤리적 절대주의자를 보았다. 특히 독일의 패전 상황에서 베버가 보기에 가장 해로운 종류의 윤리적 절대주의자는 평화주의자이며, 당대 현실에서는 피르스터(Friedrich Wilhelm Foerster, 1869-1966)가 그 대표자로 언급된다. 베버는 피르스터를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정치가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한다.⁶⁵⁾ 반면에 슈미트에게 윤리적 절대주의자는 정치적 낭만주의자가 아닌 “낭만적 정치가”(romantischer Politiker) 범주에 속한다. 슈미트는 보수주의 극작가 코체부(August von Kotzebue, 1761-1819)를 살해한 급진 자유주의자 잔트(Karl Ludwig Sand, 1795-1820)에게서 낭만적 정치가를 보았다. 잔트는 “본질적으로는 낭만주의자가 아니지만 낭만화된 표상”을 정치적 동기로 삼는 정치행위자였다는 것이다.⁶⁶⁾ 그리고 슈미트는 궁극적으로는 돈키호테(Don Quixote)가 낭만적 정치가의 순수 전형이라 보았다. 정치적 낭만주의자와 달리 선과 악에 대해 확고한 결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정치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현실에 대한 광적인 등한시”로 인해 돈키호테는 ‘낭만적’ 정치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⁶⁷⁾ 그런데 낭만적 정치가는 반혁명정치가의 주요한 반대 유형이 아니다. 반혁명정치가의 주된 반대 유형은 여전히 정치적 낭만주의자다. 그만큼 윤리적 절대주의자는 베버에게서와 달리 이 시기 슈미트에게는 가장 중요한 극복대상은 아니었다고 볼 수

Drei Masken Verlag, pp. 390-393; Carl Schmitt (1995a), “Reichspräsident und Weimarer Verfassung (1925)”, *Staat, Großraum, Nomos: Arbeiten aus den Jahren 1916-1969*, Berlin: Duncker & Humblot, pp. 24-32.

65) Max Weber (1921a), p. 443.

66) Carl Schmitt (1998), pp. 151.

67) Carl Schmitt (1998), p. 153.

있다.⁶⁸⁾

슈미트의 반혁명정치가와 베버의 직업정치를 구별해주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영국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버크와 관련된다. 베버에게 직업정치가의 모델이 되는 것은 19세기 독일 국가주의 정치를 대표하는 비스마르크가 아닌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정치지도자 글래드스톤(William Gladstone, 1809-1898)이었다.⁶⁹⁾ 반면에 슈미트는 프랑스 가톨릭 반혁명주의자들을 제외하면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꼽히는 버크를 반혁명정치의 전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버크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를 낭만주의자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심지어 낭만주의자들의 버크에 대한 존경심의 진정성 혹은 신뢰도를 깎아 내리려는 슈미트의 논쟁적 시도는 정치적 낭만주의자와 버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마이네케의 다음과 같은 평가와 대비시킬 때에만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네케는 『세계시민주의와 민족국가』에서 버크의 공로를 평가하면서 단지 그가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을 통해 프랑스 혁명의 적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18세기 자연권 국가사상에 첫 번째 치명타를 날렸다고 칭송한다. 마이네케에 따르면 버크는 우리에게 자연권 국가사상의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정치이론이 배제했던 “국가생활의 비합리적 구성요소인 전통, 인륜, 본능, 그리고 충동적인 감정의 힘에 대해 깊이 존경하고 이해하도록 가르쳐줬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버크가 역사상 처음으로 “그것들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마키아벨리 이래로 모든 근대의 현실정치가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사

68) 반면 슈미트는 1920년대 중반 이후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는 반전주의와 평화주의를 의미하는 윤리적 절대주의가 경제적 절대주의와 함께 주권국가로서의 독일의 지위를 부정하는 전간기 국제질서 이데올로기라는 의미의 자유주의의 두 축을 이룬다고 비판한다[Carl Schmitt (2009), pp. 63-72].

69) Max Weber (1921a), p. 427.

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 국가사상사에서 버크의 정신적 대리인은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을 번역한 겐츠(Friedrich von Gentz, 1764-1832)가 아니라 겐츠의 추종자이자 제자인 아담 뮐러라고 마이네케는 평가한다. 겐츠와 뮐러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였지만, 결국 독일 정치사상사에 버크 정신의 씨앗을 뿌린 것은 뮐러였으며, “뮐러가 겐츠로부터 취했을 법한 발상들은 그저 더 강한 빛이 반사된 것, 즉 버크로부터 나온 것이며, 뮐러는 곧 직접적인 통로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었다는 것이 마이네케의 결론이다.⁷⁰⁾ 반면 슈미트는 정치적 낭만주의가 버크를 진정으로 계승했다는 마이네케의 평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분명 그러한 통념에 맞서서 낭만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 버크를 그저 낭만화 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담 뮐러는 그의 지적 허영심과 기회주의 때문에 “버크 정신의 대리인” 행세를 했을 뿐, 실제로는 보수정치가로서의 버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난한다.⁷¹⁾ 『정치적 낭만주의』의 첫 문장이 바로 겐츠의 죽음으로 시작한다는 사실도 이 쟁점과 관련하여 간과하기 힘들다.⁷²⁾

70) Friedrich Meinecke (1969), pp. 120-121.

71) Carl Schmitt (1998), p. 131; 슈미트는 이후에 『국가이성의 이념사』에 대한 서평에서 마이네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간다[Carl Schmitt (1926), “Zu Friedrich Meineckes Idee der Staatsräson”,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56 (1), J. C. B. Mohr, pp. 226-234].

72) Carl Schmitt (1998), p. 25.

5. 결론

슈미트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저작들 중에서 『정치적 낭만주의』만의 특징 중 하나는 당대의 정치현실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독재』와 『정치신학』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48조의 대통령 비상대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현대의회제의 정신사적 상황』은 이탈리아에서의 파시즘 등장을 의회제 몰락의 중요한 계기로 언급한다.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서는 가톨릭정치가 적응해야 하는 당대의 새로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는 주권 국가로서의 독일의 지위가 부정되는 국제관계 상의 사건들이 중요 계기들로 다루지고 있다. 명확하게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자체에 대한 교과서이자 논쟁서인 『헌법론』이나 이 헌법상의 권력구조 논쟁에 대한 개입인 『헌법의 수호자』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정치상황과의 관련성을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이 책 『정치적 낭만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패전의 상황에서 독일의 지적·정치적 엘리트의 주류가 ‘정치적 낭만주의’로 대표되는 19세기 독일 지성사의 유산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 당대의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의 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낭만주의』는 슈미트의 중요한 초기 저작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과도기 저작으로서의 특징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슈미트는 아담 뮐러에게서의 정치적 결단과 행동의 결여를 비판하면서 뮐러가 자유주의적 “토론”과 “균형” 원칙을 낭만화한 결과물인 “대화”를 정치와 통치에서 강조한 것이 결국 낭만주의가 태생적으로 보수적이지 않고 “자유주의적”이라는 증거라고 공격했다.⁷³⁾ 그런데 슈미트

73) Carl Schmitt (1998), p. 142.

는 정작 ‘토론’과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의회제를 비판할 때에는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낭만주의』에서 보수정치가의 전형으로 평가했던 버크가 슈미트 자신의 독재와 의회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과정에서 정반대로 의회의 토론 및 심의 기능을 중시했던 전형적인 영국 의회주의자임이 확인되면서 더 이상 보수정치가나 반혁명독재자의 모범으로 그의 저작에서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⁷⁴⁾ 결국 슈미트는 버크 대신 도노소 코르테스를 선택하고 그에 관한 몇 편의 글을 발표한다.⁷⁵⁾ 이 글들에서 슈미트는 대체로 평가가 좋지 않았던 도노소 코르테스의 공식 저작들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행적과 연설들로부터 정치적 가톨릭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독재론을 재구성해내고자 안간힘을 썼다.⁷⁶⁾

결국 슈미트는 자신이 『정치적 낭만주의』에서 다뤘던 인물들이나 그들의 관한 평가와 관련하여 그 이후에도 이를 상세하게 재론하거나 당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의 의미는 쿠르티우스(Ernst Robert Curtius, 1886-1956)가 1922년에 슈미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용한 표현처럼 “대립유형들로서의 독재자와 낭만주의자”⁷⁷⁾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낭만주의자’는 역사적인 독일 낭만주의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1919년 이후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19세기 독

74) Carl Schmitt (1923). *Die geistesgeschichtliche Lage des heutigen Parlamentarismus*, München: Duncker & Humblot.

75) Carl Schmitt (2012), *Donoso Cortés in gesmateuropäischer Interpretation: Vier Aufsätze*, Berlin: Duncker & Humblot.

76) 하지만 슈미트의 이러한 해석은 실제로는 독재론자였다고보다는 가톨릭 전통주의-보수주의자에 가까웠던 도노소 코르테스에 대한 왜곡으로 평가받는다[Brian Fox (2013), “Schmitt’s Use and Abuse of Donoso Cortés on Dictatorship”, *Intellectual History Review* 23 (2), pp. 159-185].

77) Carl Schmitt (2014), *Der Schatten Gottes: Introspektionen, Tagebücher und Briefe 1921 bis 1924*, Berlin: Duncker & Humblot, p. 553.

일 지성사의 유산을 의미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반면에 ‘독재자’는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낭만주의자들, 혹은 그들의 자유주의적 후예들에 의해서 장악된 입법부를 압도하여 집행부에 모든 권한을 집중할 수 있는 정부형태와 이를 주도하는 정치지도자를 지칭한다.⁷⁸⁾ 그리고 이러한 슈미트 독재론에 대한 평가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이후 그가 보여준 명백하게 비윤리적인 행적 이전에 가톨릭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통치 실패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 평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슈미트의 1920년대 중후반 이후의 저작들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78) 슈미트는 이미 1916년에 독재가 단지 절대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치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집행부와 입법부 사이의 양자택일 상황에서 전자에 의한 배타적 권력독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Carl Schmitt (1995b), “Diktatur und Belagerungszustand. Eine staatsrechtliche Studie (1916)”, *Staat, Großraum, Nomos: Arbeiten aus den Jahren 1916-1969*, Berlin: Duncker & Humblot, pp. 3-23].

참고문헌

【자 료】

- 칼 슈미트(2020), 조효원 역, 『정치적 낭만주의』, 성남: 에디투스.
- C. 시미트(1976), 배성동 역, 『정치적 낭만』, 서울: 삼성출판사.
- Arendt, Hannah (2007), “Adam Müller — Renaissance?”, *Reflections on Literature and Culture* (ed. by Susannah Young-ah Gottlieb),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axa, Jakob (1923), *Einführung in die romantische Staatswissenschaft*, Jena: G. Fischer.
- Kant, Immanuel (1968),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Kants Werke: Akademie Textausgabe, Bd. VI*, Berlin: Walter de Gruyter.
- Meinecke, Friedrich (1976), *Die Idee der Staatsräson in der neueren Geschichte*,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 _____ (1969), *Weltbürgertum und Nationalstaat*,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 _____ (1920), “Politische Romantik. Von Dr. Carl Schmitt-Dorotič, München und Leipzig, Duncker & Humblot, 1919, 162 S.”, *Historische Zeitschrift* 121, R. Oldenbourg Verlag.
- Müller, Adam (1931a), *Ausgewählte Abhandlungen*, Jena: G. Fischer.
- _____ (1931b), *Vom Geiste der Gemeinschaft: Elemente der Staatskunst. Theorie des Geldes*, Leipzig: A. Kröner.
- _____ (1923), *Schriften zur Staatsphilosophie*, München: Theatiner-Verlag.
- _____ (1922), *Die Elemente der Staatskunst*, Jena: G. Fischer.
- _____ (1809), *Die Elemente der Staatskunst*, II, Berlin: Sander.
- Novalis (1983), *Schriften III: Das philosophische Werk II*,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 _____ (1981), *Schriften II: Das philosophische Werk I*,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 Schlegel, Friedrich (1966), *Kritische Friedrich-Schlegel-Ausgabe, Bd. 7, Studien zur Geschichte und Politik*, München, Verlag Ferdinand Schöningh.
- Schmitt, Carl (2014), *Der Schatten Gottes: Introspektionen, Tagebücher und Briefe 1921 bis 1924*, Berlin: Duncker & Humblot.
- _____ (2012), *Donoso Cortés in gesmateuropäischer Interpretation: Vier Aufsätze*, Berlin: Duncker & Humblot.
- _____ (2009), *Der Begriff des Politischen: Text von 1932 mit einem Vorwort und drei Corollarien*, Berlin: Duncker & Humblot.
- _____ (2005), *Die Militärzeit 1915 bis 1919. Tagebuch Februar bis Dezember 1915. Aufsätze und Materialien*, Berlin: Akademie Verlag.
- _____ (1998), *Politische Romantik*, Berlin: Duncker & Humblot.
- _____ (1995a), “Reichspräsident und Weimarer Verfassung (1925)”, *Staat, Großraum, Nomos: Arbeiten aus den Jahren 1916-1969*, Berlin: Duncker & Humblot.
- _____ (1995b), “Diktatur und Belagerungszustand. Eine staatsrechtliche Studie (1916)”, *Staat, Großraum, Nomos: Arbeiten aus den Jahren 1916-1969*, Berlin: Duncker & Humblot.
- _____ (1926), “Zu Friedrich Meineckes Idee der Staatsräson”,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56 (1), J. C. B. Mohr.
- _____ (1925a), *Politische Romantik*, München: Duncker & Humblot.
- _____ (1925b), *Römischer Katholizismus und politische Form*, München: Theatiner-Verlag.
- _____ (1923), *Die geistesgeschichtliche Lage des heutigen Parlamentarismus*, München: Duncker & Humblot.
- _____ (1922),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München: Duncker & Humblot.
- Schmitt-Dorotič, Carl (1921a), “Politische Theorie und Romantik”, *Historische Zeitschrift* 122, R. Oldenberg Verlag.
- _____ (1921b), *Die Diktatur: von den Anfängen des modernen Souveränitätsgedankens bis zum proletarischen Klassenkampf*, München: Duncker & Humblot.
- _____ (1919), *Politische Romantik*, München: Duncker & Humblot.

- Spann, Othmar (1911), *Die Haupttheorien der Volkswirtschaftslehre auf dogmen-geschichtlicher Grundlage*, Leipzig: Quelle & Meyer.
- Treitschke, Heinrich von (1922), *Politik: Vorlesungen*, gehalten an der Universität Berlin, Leipzig: S. Hirzel.
- Weber, Max (1921a), “Politik als Beruf”,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München: Drei Masken Verlag.
- _____ (1921b), “Der Reichspräsident”,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München: Drei Masken Verlag.

【논 저】

- Beiser, Frederick (2003), *The Romantic Imperative: The Concept of Early German Romantic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ew, John (2015), *Realpolitik: A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öckenförde, Ernst-Wolfgang, & Gerhard Dohrn-van Rossum (1978), “Organ, Organismus, Organisation, politischer Körper”,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e-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Band 4* (hrsg. von Otto Brunner, Werner Conze & Reinhart Koselleck), Stuttgart: Klett-Cotta.
- Conway, Martin (2005), “Catholic Politics or Christian Democracy? The Evolution of Inter-war Political Catholicism”, *Political Catholicism in Europe 1918-1945* (eds. by Wolfram Kaiser & Helmut Wahnout), London: Routledge.
- _____ (1997), *Catholic Politics in Europe 1918-1945*, London: Routledge.
- Elvert, Jürgen (2005), “A Microcosm of Society or the Key to a Majority in the Reichstag? The Centre Party in Germany”, *Political Catholicism in Europe 1918-45* (eds. by Wolfram Kaiser & Helmut Wahnout), London: Routledge.
- Fox, Brian (2013), “Schmitt’s Use and Abuse of Donoso Cortés on Dictatorship”, *Intellectual History Review* 23 (2).
- Kelly, Duncan (2018), “August Ludwig von Rochau and Realpolitik as historical

- political theory”, *Global Intellectual History* 3 (3).
- _____ (2017), “Introduction: Carl Schmitt’s Critique of Friedrich Meinecke”, *Max Weber Studies* 17 (1).
- Kennedy, Ellen (1988), “Politischer Expressionsmus: Die kulturkritischen und metaphysischen Ursprünge des Begriffs des Politischen von Carl Schmitt”, *Complexio Oppositorum. Über Carl Schmitt* (hrsg. Helmut Quaritsch), Berlin: Duncker & Humblot.
- Kurzke, Hermann (1983), *Romantik und Konservatismus: Das “politische” Werk Friedrich von Hardenbergs (Novalis) im Horizont seiner Wirkungsgeschichte*,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 Löwith, Karl (1984), “Der okkasionelle Dezisionismus von Carl Schmitt”, *Sämtliche Schriften. bd. 8*, Stuttgart: Metzler.
- McCormick, John (1997), “The Dilemmas of Dictatorship: Carl Schmitt and Constitutional Emergency Powers”, *Canadian Journal of Law & Jurisprudence* 10 (1),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 Mehring, Reinhard (2009), *Carl Schmitt: Aufstieg und Fall. Eine Biographie*, München: C.H. Beck.
- Oakes, Guy (1986), “Translator’s Introduction”, Carl Schmitt, *Political Romanticism* (trans. by Guy Oakes), Cambridge: MIT Press.
- Roques, Christian (2018), “Bridging the Political Gaps: The Interdiscursive Qualities of Political Romanticism in the Weimar Republic”,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Concepts* 13 (1), Berghahn Books.
- Stollberg-Rilinger, Barbara (1986), *Der Staat als Maschine: zur politischen Metaphorik des absoluten Fürstentums*, Berlin: Duncker & Humblot.
- Stolleis, Michael (1992), *Geschichte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utschland, Band 2: Staatslehre und Verwaltungswissenschaft, 1800-1914*, München: Verlag C. H. Beck.

원고 접수일: 2020년 10월 17일

심사 완료일: 2020년 11월 3일

게재 확정일: 2020년 11월 5일

ABSTRACT

Carl Schmitt's Catholic *Realpolitik*
in *Political Romanticism*

Hong, Chulki*

A German constitutional lawyer, Carl Schmitt's *Political Romanticism* has generally been read as a critique of German Romanticism and liberalism as a whole. His main target of criticism, however, was a 19th century German philosopher and politician Adam Müller and political romantics. They would generally not be considered as the legitimate representatives of Romanticism or liberalism by our contemporaries. I raise and answer the two following questions regarding the representative and political qualities of Adam Müller and political romantics. First, why was it particularly Adam Müller? It was because Müller was considered as the main source of uniquely 'German' politics, economics and theology, transcending the inner-political oppositions by Schmitt's contemporaries in the Weimar Republic era whom Schmitt directly opposed. Second, why did Schmitt, a Catholic conservative, reject political romantics who praised conservative and reactionary Restoration and the Catholic Church in their time? It was because, unlike political romantics, Schmitt considered Ultramontanism as unrealistic and believed that German Catholics should

* Researcher, Institute of Global Political Thought in Korea, Sogang University

not only support but also lead a dictatorial government in which the executive overruled the legislative by accept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alpolitik*.